



한동안 좀 고생을 해야 할 것 같네요. 다리 때문에 정말 많은 시간을 힘들게 합니다.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질 것을 바라보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.

이번주에 HH 아이들 2 명이 또 들어옵니다. 잘 적응하며 나아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. 우리 아이들은 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하여 직장생활들을 잘 감당하고 있고 남아있는 아이들도 계속하여 공부들을 잘 하며 식품공장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맛있는 빵들을 만들어서 노인들을 잘 봉양하며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. 정말 감사하고 있지요. 요즘은 생일케익도 이 만들고 있다고 하네요. 중국도 아이들 생일 잔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시대가 많이 변해가고 있으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.

왼쪽의 소식들은 여전히 힘든 시간으로 계속하여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아요. 언제나 좋은 소식들이 전해질지 기다려 봐야겠어요. 이곳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. 숙사건축을 원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셔서 앞으로 좋은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. 여전히 할일들은 많은 것 같아요. 8 월말이 되면 좀 선선해 지겠지요. 기대를 하면서 계속하여 열심히 맡겨진 것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함께 하여 주시고 힘을 보태어 주시길 바랍니다.

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멀리서 벨릴리 벨릴리 소리를 울립니다.

8.18.2024 이전세/옥소리 드림